

敦煌의 지역적 맥락에서 본 初唐期 陰家窟의 정치적 성격

김 혜 원*

- I. 머리말
- II. 初唐期 敦煌의 陰家窟
- III. 陰家窟의 특징과 陰氏의 정치적 성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640년 唐(618-907) 왕조가 西域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中原과 敦煌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밀접해졌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初唐期(618-712)의 돈황 莫高窟은 일반적으로 중원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武則天期 석굴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武則天은 690년 당 왕조를 폐하고 周를 건국하여 황제로 올랐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와 불교적 상징물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초당기 중원과 돈황의 밀접한 관련에 대한 일반론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唐代 사료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약 3,700리에 이르는 長安과 돈황 사이의 거리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감안할 때 중원과 차이를 보이는 돈황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막고굴에서 석굴을 조성할 때 반영되었으리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돈황 막고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원적인 맥락과 지역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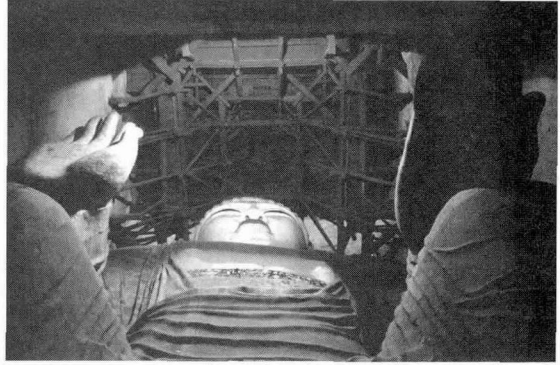
막고굴의 지역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名族' 또는 '望族'이라고 칭해지는 이 지역 유력 가문이 발원한 석굴들이 있다. 초당기의 이러한 석굴 중에 陰氏 가문이 발원한 소위 陰家窟이 특히 주목된다. 우선 이들은 동시기 다른 명족이 발원한 석굴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또한 武則天(재위 690-705)의 정치적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기록이 『敦煌名族志』, 『沙州圖經』과 같은 문헌 자료에 잘 남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음가굴은 무측천 시기 막고굴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던 정치적인 성격을 돈황이라는 지역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둘도 없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초당기 음가굴의 시각 자료와 관련 문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원 양식의 수용, 발원자의 의도, 지역적 특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II. 初唐期 敦煌의 陰家窟

초당기 막고굴 중에서 석굴의 供養人 題記나 碑文을 통해 음씨 발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초당기의 모습이 잘 남아 있는 예는 제96굴, 제321굴, 제217굴이다.¹ 명족이 발원한 석굴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들 3기의 석굴 역시 초당기 석굴 중에 규모나 내부를 장식하는 벽화에서 새로운 면모가 돋보인다. 본 장에서는 각 석굴에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와 석굴 발원자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¹ 초당기 음가굴에 대한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万庚育, 「珍貴的歷史資料—莫高窟供養人畫像題記」,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北京: 文物出版社, 1986), p.185; 賀世哲, 「從供養人題記看莫高窟部分洞窟的營建年代」,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北京: 文物出版社, 1986), pp.200-204; 史葦湘, 「氏族與石窟」, 『敦煌研究文集』(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2), pp.151-164; 馬德, 『敦煌莫高窟史研究』(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7), pp.241-254; 馬德, 「敦煌陰氏與莫高窟陰家窟」, 『敦煌學輯刊』1997年 第1期, pp.90-95.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3기의 석굴 이외에도 음가굴로 확인되는 석굴로 제432굴이 있으며, 여기에는 陰義全이라는 발원자의 이름과 貞觀22年(648)의 연대가 남아 있다. 이 석굴은 원래 西魏 시기에 개착된 석굴로, 貞觀 연간에 바로 옆 석굴인 제431굴과 함께 중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석굴의 대부분이 西夏期 벽화로 덮여 있어 초당기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본 논의에서 이 석굴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도 2 돈황 막고굴 제96굴 본尊

도 1 돈황 막고굴 제96굴 전경

1. 제96굴

제96굴은 막고굴에서 가장 큰 석굴로, 전면은 9층 목조 건축물의 모습을 띠고 있다¹. 안쪽에는 3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倚坐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돈황에 처음으로 등장한 大像에 해당한다². 제96굴의 조성 배경은 『莫高窟記』에 잘 남아 있다. 延載2年(695) 禪師 靈隱과居士 陰祖 등이 北大像이라고 불리는 제96굴의 상을 만들었고, 그 높이는 140尺이었다고 한다.³

이처럼 대규모의 상을 돈황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陰祖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당대 돈황 명족에 대한 중요한 자료인 『敦煌名族志』(p.2625)는 이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

² 제96굴의 전면에는 원래 5층 누각 모습의 목조 건축이 있었으나, 1920년대 지진으로 파손된 것을 1936년에 재건축했고, 이때부터 9층 목조 건축물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府憲展, 「序言」, 『俄藏敦煌藝術品』第1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p.16.

³ “延載二年禪師靈隱共居士陰祖等造北大像高一百四十尺…” 「막고굴기」는 제156굴 전실 북벽 위쪽에 晚唐期에 목서로 쓴 일부가 남아 있으며, p. 3720 문서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다. 전문은 다음 논문 참고. 제96굴의 본존이 바로 ‘北大佛’이며, 제130굴에 안치된 23m에 달하는 거대한 의좌상은 ‘南大佛’이라고 불렸다. 宿白, 「〈莫高窟記〉跋」, 『中國石窟寺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200, 203-204.

공한다.⁴ 709-71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황명족지』의 잔권에는 張氏, 陰氏, 索氏에 대한 부분만이 남아 있다. 잔권의 앞뒤에 등장하는 장씨와 색씨 부분은 일부만 남아 있는데 반해서, 중간에 나오는 음씨 부분은 전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 음조는 84세로 당시 음씨 가문의 가장 연장자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의 공적 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板授秦州清水縣令이라는 직책만이 쓰여 있다.⁵ 板授는 80세나 90세가 넘는 이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는 그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⁶

현재 제96굴에 안치되어 있는 상은 크기나 자세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7세기 후반 조성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양식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⁷ 의좌라는 자세와 이것이 만들어진 武則天 시기(재위 690-705)에 彌勒 신앙이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彌勒大佛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⁸

무측천 시기의 미륵신상은 690년 7월, 새로운 왕조인 周의 건국을 앞두고 찬술된 『大雲經疏』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⁹ 돈황유서 S. 6502에 전하는 『대운경소』는 무측천의 황

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돈황명족지』는 일찍이 1929년 Paul Pelliot와 羽田亨이 『敦煌遺書活字本』 第1輯에 처음 수록하면서 소개되었다. 원문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 참고. 池田溫, 「唐朝氏族志の一考察—いわゆる敦煌名族志殘卷をめぐって」, 『北海島大文學部紀要』 13-2(1965), pp.3-64.

⁵ 池田溫, 위의 논문, pp.9-10.

⁶ 池田溫, 위의 논문, p.21.

⁷ 제96굴은 晚唐의 張淮深, 宋初의 曹元忠과 그의 부인 翟氏, 清代의 壇壘 등에 의해 중수된 바 있다. 段文傑, 「唐代前期의莫高窟藝術」, 『中國石窟 敦煌莫高窟』(東京: 平凡社, 1983), p.17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96굴의 상이 무측천의 외양을 따랐다는 寧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Ning Qiang, *Art, Religion, and Politics in Medieval China: The Dunhuang Cave of the Zhai Family*(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p.113-114.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서평 참고. Amy McNair, "Book Review: Ning Qiang, *Art, Religion, and Politics in Medieval China: The Dunhuang Cave of the Zhai Family*," *Artibus Asiae*, vol. 65, no. 1(2005), pp.152-154.

⁸ 이 상을 釋迦像, 盧舍那像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石璋如, 「敦煌千佛洞遺碑及其相關的石窟考」, 集刊 34(1962), p.81; 池田溫, 「八世期初における敦煌の氏族」, 『東洋史研究』 第24卷 第3號(1969), p.42. 한편, 이 상을 미륵으로 지칭하는 唐代 자료로 「曹元忠夫婦重修北大像樓閣記」, 「敦煌大事記」(p.3721)가 있다. 宿白, 앞의 논문, p.203.

⁹ 『舊唐書』 本紀 第6, p.121; 『舊唐書』 列傳 第133, p.4742; 『新唐書』 本紀 第4, p.131; 『자치통감』 204, 1988b10. 무측천의 정치적 활동과 황제로서의 위치에 대한 정당성 획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 참고. R. W. L. Guisso, *Wu Tse-Tien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in Tang China*(Bellingham, Washington: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978.

제 즉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薛懷義, 法明을 포함한 10명의 승려가 洛陽의 敬愛寺에서 완성한 것이다.¹⁰ 이는 『大雲經』 가운데 南天竺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번영시킨다는 淨光天女와 관련된 부분(주로 제6권)과 각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이 중에는 석가 모니가 미륵에게 ‘化城’을 만들도록 했다고 언급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미륵, 즉 慈氏가 바로 무축천이라는 설명이 나온다.¹² 이처럼 무축천과 미륵을 동일시했던 시도는 695년에 무축천이 자신의 새로운 칭호로 제시한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에서도 잘 드러난다.¹³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大佛이라는 특징을 제96굴 본존과 공유하는 상으로 689년 洛陽에 세워진 明堂 建築群의 불상이 있다.¹⁴ 명당은 天命을 받은 황제만이 건립할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唐의 太宗(재위 627-649)과 高宗(재위 650-683)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초당 시기에 이를 실행에 옮긴 인물로는 무축천이 유일하다.¹⁵ 太后의 지위에 있던 垂拱4年(688) 1월, 長安 宮城의 乾元殿을 허물고 그 자리에 명당을 짓기 시작했다.¹⁶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승려 薛懷義는 그 공으로 左威衛大將軍이라는 직책을 받고 梁國公으로 봉해졌다.¹⁷ 명당의 북쪽에는 전통적인 靈臺에 해당하는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는 天堂이라고 불렸고 안쪽에는 ‘夾紵大像’(乾漆佛)을 안치했다.¹⁸ 불상을 안치한 천당의 높이는 1,000尺(약 300m)

¹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참고, Antonino Forte, *Political Propaganda and Ideology in China at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Inquiry into the Nature, Authors and Function of the Tun-huang Document S. 6502, Followed by an Annotated Translation*(Napoli: In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1976), pp.3-54.

¹¹ T387 12 1106a-1107b; Forte, 위의 책, pp.183-238.

¹² “王尊者願彌勒爲我造化成…(중략)…彌勒者即神皇應也…” Forte, 위의 책, p.188. 무축천과 미륵을 동일시했음은 『구당서』 설화의 條에도 명시되어 있다. 설화의 등이 『대운경』을 써서 符命으로 바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則天이 미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閻浮提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舊唐書』 列傳 第133, p.4742.

¹³ 상징물을 유난히도 중시했던 무축천은 자신의 칭호를 자주 바꿨다.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용했던 칭호로, 695년 정월에 정했지만 같은 달에 明堂이 화제로 불에 타자 그 다음 달에 ‘慈氏越古’ 부분을 생략했다. 『舊唐書』 本紀 第6, p.124; 『新唐書』 本紀 第4, p.95.

¹⁴ 무축천이 정치적 활동을 하던 시기의 다른 대불에 대해서 다음 책 참고. 배진달, 『唐代佛教彫刻』(서울: 일지사, 2003), p.261.

¹⁵ 초당기 황제와 명당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Howard Wechsler, *Offerings of Jade and Silk*(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p.205-211; 『唐會要』, pp.79-98.

¹⁶ 『新唐書』에는 명당은 688년 12월에 ‘萬象神宮’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 本紀 第4, p.88.

¹⁷ 『舊唐書』 列傳 第133, p.4742.

¹⁸ ‘협저대상’은 『자치통감』(권204, 6455)에 나오는 표현으로, 일부 학자는 청동불 또는 소조불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모시 베를 끼어 넣어(夾紵) 만든 상으로, 건칠불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배진달, 앞의 책, p.261; Antonino Forte, *Mingtang and Buddhist Utopias in the History of the Astronomical Clock: The Tower, Statue and Armillary Sphere Constructed by Empress Wu*(Rome: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88), pp.82-84.

으로 언급되고 있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96굴의 상처럼 스케일이 매우 큰 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¹⁹

무척천의 정치적 정당화를 위해 사용한 미륵, 명당, 영대가 지닌 상징성은 돈황 지역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척천과 미륵을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운경소』가 돈황에서 발견되었다. 역시 돈황유서 중에 포함되어 있던 『沙州圖經』(p.2005)에도 명당의 완성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²⁰ 또한 “백성들이 스스로 와 이것을 만들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완성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歌謠가 등장하며, 이는 『詩經』에 나오는 영대를 지을 때 나오는 구절과 유사하다.²¹ 이는 영대가 임금의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을 때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척천의 정치적인 의도가 이처럼 돈황에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륵대불의 발원을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695년 음조가 제96굴 발원에 참여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8-69세였다. 70에 가까운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륵대불의 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서 자신이 무주 정권의 지지자임을 널리 알리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전은 설회의의 예에서 보듯이 출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음조도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세력이 커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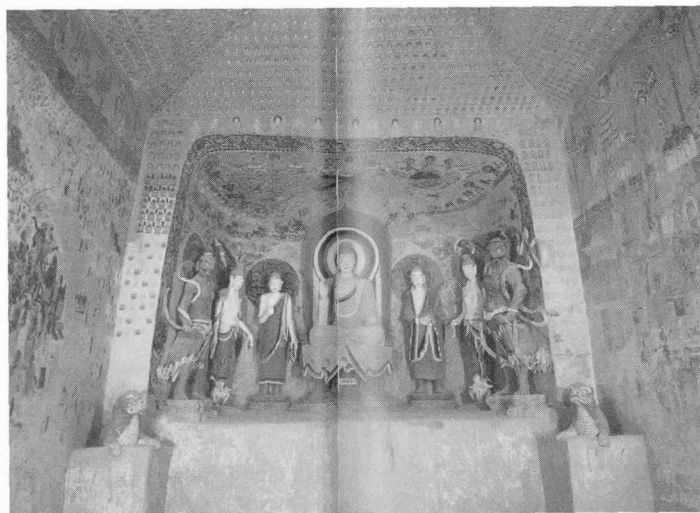
2. 제321굴

제321굴은 7세기 말로 편년되는 제332굴(698년), 제335굴(685-699년)의 석굴과 인접해 있고 석굴 형식과 벽화의 양식상 유사한 점이 많아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개착된 것으로 보

¹⁹ Forte, 위의 책, pp.76-78; 張簾, 『朝野僉載』卷5, p.65.

²⁰ Forte, *Mingtang and Buddhist Utopias*, p.105. 『사주도경』(P. 2005)의 원문은 다음 참고. 上海古籍出版社, 法國國家圖書館編, 『法國國家圖書館藏敦煌西域文獻』第3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98), pp.43-64. 『사주도경』의 내용은 P. 2005 이외에 S. 2593, S. 2595, P. 5034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연대는 7세기 후반과 8세기 초인 것은 확실하나, 보다 구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開元시기에 쓰였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上元3년(676)에 시작되어 개원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 침식되어 永泰2년(766)에 『沙州都督府圖經』으로 개칭되었다는 설이고, 세 번째는 武周시기에 쓰였다는 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李宗俊, 「〈沙州都督府圖經〉撰修年代新探」, 『敦煌學輯刊』2004年 第1期, pp.53-59; 朱悅梅, 李并成, 「〈沙州都督府圖經〉纂修年代及其相關問題考」, 『敦煌研究』2005年 第4期, pp.61-65.

²¹ 『사주도경』의 구절은 “庶人自來 自來之作 不日而成”이며, 『시경』의 구절은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極, 庶民自來”로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Forte, *Mingtang and Buddhist Utopias*, pp.102-108.



도 3 돈황 막고굴 제321굴
내부 전경

인다도3.²² 석굴에는 唐代에 쓰인 題記는 없고, 五代 供養인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석굴 동쪽 벽에 표현된 공양인 중 두 인물 옆에 “弟子陰”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고, 북쪽 벽에 그려진 공양인 중에도 “弟子陰□子”라는 글자가 있다.²³ 막고굴에는 한 가문의 석굴이 개착되고 유지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음씨 가문은 초당기부터 활발히 석굴 조성에 참여했고 오대에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석굴도 초당 시기에 음씨에 의해 개착되고 오랜 기간 유지된 예로 보인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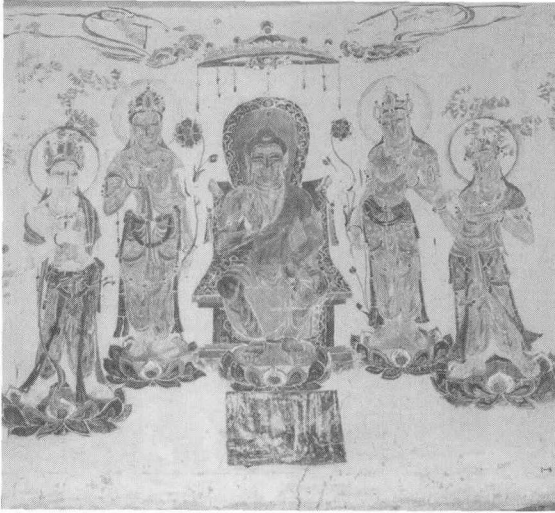
제321굴의 건축적 구조, 조각, 벽화는 기본적으로 초당기 석굴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 석굴의 구조를 보면, 伏斗形의 천장과 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지니며 석굴의 입구는 동쪽 벽에 만들어져 있다. 이를 통해 主室로 들어가면 서쪽 벽에 크게 만들어진 龕室을 정면에서 마주 보게 된다. 감실 안쪽에는 7尊으로 구성된 塑造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후대에 보수되어 색채가 매우 선명하고 생경하다.²⁵ 동쪽 벽에는 통일성 없이 여러 주제가 함께 그려져 있고, 각 주

²² 제321굴 벽화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Haewon Kim, “Unnatural Mountains: Meaning of Buddhist Landscape in the Precious Rain Bianxiang in Mogao Cave 321” (Ph.D. diss.,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2001); 李玉珉, 「敦煌莫高窟第三二一窟壁畫初探」, 『臺灣2002年東亞繪畫史硯討會』 발표자료집, pp.89-103.

²³ 敦煌研究所 編,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 p.130.

²⁴ 10세기에 음씨는 여전히 명족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900-905년에 개착된 제183굴은 음가굴 중 하나이며, 曹氏 정권기의 河西都僧統에 오른 海晏和尚이 바로 음씨 출신이다. 馬德, 「敦煌陰氏與莫高窟陰家窟」, p.95.

²⁵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3卷(東京: 平凡社, 1981), p.250; 敦煌研究院, 江蘇省美術出版社 編, 『敦煌石窟藝術, 莫高窟第三二一窟』(深圳: 江蘇省美術出版社, 1999), p.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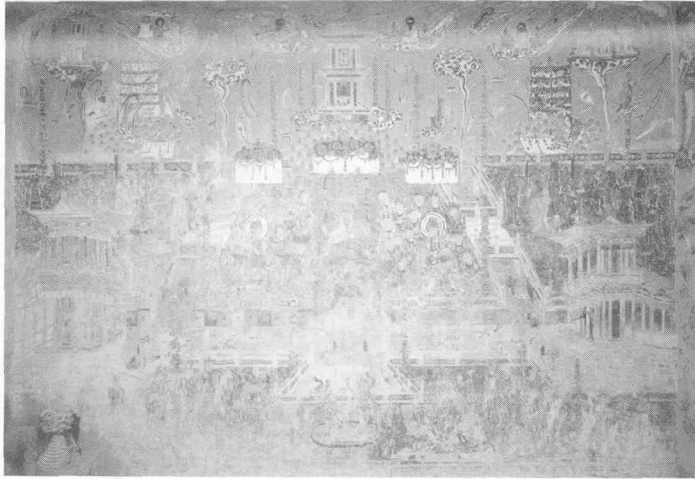


도 4 돈황 막고굴 제321굴 동벽 세부

제를 표현한 양식도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도4}. 배경이 생략된 부분이 많고, 神像의 신체가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전 시기 양식의 흔적으로 보인다. 동벽에 비해 북쪽과 남쪽 벽의 벽화는 훨씬 짜임새 있는 구도와 표현방식을 보여준다^{도5,6}. 우선 하나의 주제를 담은 큰 벽화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다. 變相에 해당하는 이들 그림은 중앙에는 큰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說法 장면이, 그 주변에 작은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²⁶

기본적인 석굴의 구조와 서벽에 감실이 배치된 모습, 그리고 남쪽과 북쪽 벽에 하나의 주제를 다룬 變相이 그려진 것은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다른 석굴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제321굴에는 동시기 다른 석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방식과 내용이 몇 가지 보인다. 우선 북쪽 벽에 그려진 〈阿彌陀經變〉을 보면, 동시기 다른 〈아미타경변〉에 비해 건축 배경이 하단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늘로 처리하여 공간의 깊이를 실감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공간의 효과적인 재현은 남쪽 벽에 그려진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가운데 표현된 佛說法 장면을 중심으로 산악 배경이 펼쳐져 있는데,

²⁶ 시각적인 표현에 대해 ‘變’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예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變相’은 唐代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당시에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된 그림 형식을 가리키게 되었다. 변상과 관련된 문헌 기록과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Victor Mair, “Records of Transformation Tableaux (Pienhsiang),” *Toung Pao* 72(1986), pp.3-43; Wu Hung, “What Is Bianxiang?—On the Relationship between Dunhuang Art and Dunhuang Literatu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 52, no. 1(June 1992), pp.11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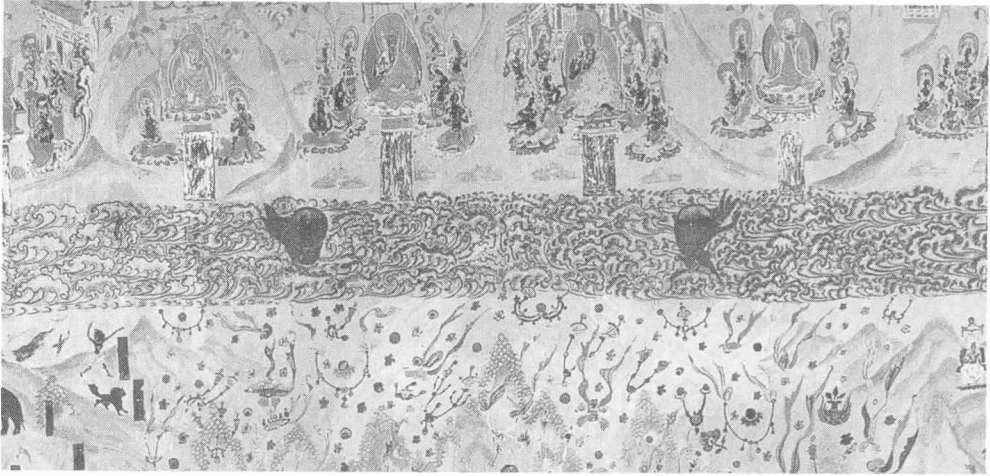
도 5 돈황 막고굴 제321굴
북벽 〈阿彌陀經變〉



도 6 돈황 막고굴 제321굴
남벽 〈寶雨經變〉

동시기의 벽화에 보이는 산악 표현에 비해 훨씬 짜임새 있고 세부 묘사도 더해진 모습을 보인다.²⁷

²⁷ 秋山光和는 7세기 후반의 벽화 중에서 제321, 323굴의 벽화의 산수 표현이 동시기 예에 비해 진전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秋山光和, 「唐代敦煌壁畫にあらわれた山水表現」,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5卷(東京: 平凡社, 1982), pp.194-196. 또한 이 석굴과 동일한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제329, 335, 332굴 등 일련의 석굴에 그려진



도7 도6의 세부

한편, 남쪽 벽에 그려진 변상은 주제 면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 이 벽화는 애초에는 〈法華經變〉으로 여겨졌으나, 1983년 중국 돈황미술 연구의 大家인 史葦湘 선생에 의해 〈寶雨經變〉이라고 판명된 바 있다.²⁸ 『寶雨經』은 唐 이전에 두 차례 번역된 바 있지만, 무척 천의 周 시기에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693년, 남인도에서 온 菩提流支에 의해 경전이 다시 번역되었으며, 이때 경전에 무주 정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삽입되었다.²⁹ 그 내용은 『대운 경소』와 유사한데, 부처는 月光天子가 남섬부주 동북쪽에 위치한 摩訶支那國에서 여성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不退轉菩薩이자 轉輪聖王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³⁰

제321굴 남벽 벽화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구름 띠와 둥근 물체를 들고 있는 두 손의 모습이다도7. 이는 史葦湘이 벽화를 〈보우경변〉으로 판명할 때 결정적

經變을 보면, 건축이나 산악 배경이 화면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어 제321굴의 북벽과 남벽에 그려진 벽화에 비해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동시기 벽화와의 비교는 Haewon Kim, "Unnatural Mountains," 제2장 참고. 제329, 335, 332굴 벽화 도판은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3卷, 도44, 45, 61, 93, 94 참고.

²⁸ 史葦湘, 「敦煌莫高窟의 《寶雨經變》」, 『1983年全國敦煌學術討論會文集』 石窟·藝術編 上(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7). 제321굴 〈보우경변〉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고. 김혜원, 「돈황 막고굴 제321굴 〈보우경변(寶雨經變)〉에 보이는 산악 표현의 정치적 의미와 작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1호(2002), pp.70-99.

²⁹ 삽입된 구절은 다음 참고. T660, 16: 284b-c. 당시 정황에 대한 논의는 다음 책 참고. Forte, *Political Propaganda*, pp.125-176.

³⁰ T660, 16: 283b-284c.



도8 護法獸, 돈황 막고굴
제321굴 발견,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9 護法獸, 돈황 막고굴
제321굴 발견,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인 근거가 된 모티프로, 그는 이를 689년 제정된 新字로 쓴 武則天의 이름인 “曩”을 형상화한 것으로 설명했다.³¹ 즉 글자를 이루는 요소인 해, 달, 하늘에 해당하는 日, 月, 空자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王惠民은 기존에 <普門品變>이라고 알려진 제74굴의 盛唐 시기의 벽화가 제321굴의 <보우경변>과 유사하다고 보았다.³² 그리고 두 벽화의 도상을 재검토한 후 <十輪經變>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³³ 그런데 『십륜경』으로는 이 벽화의 가장 큰 특징인 하늘 속의 해와 달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제74굴의 벽화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321굴 남벽에 그려진 벽화는 7세기 후반이라는 시점, 그리고 무측천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현재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쌍의 護法獸像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8,9.}³⁴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 한 쌍을 이루는 이들 동물상을

³¹ 史華湘, 앞의 논문, pp.62-64.

³² 제74굴의 벽화를 <보문품변>으로 본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고. 松本榮一, 『敦煌畫の研究』(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37), p.133, 도판 36a.

³³ 王惠民, 「敦煌321窟, 74窟十輪經變考釋」, 『藝術史研究』 第6輯(2004), pp.309-336. 『십륜경』은 地藏 신앙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이와 관련된 당 전반기 돈황의 지장 신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王惠民, 「唐前期敦煌地藏圖像考察」, 『敦煌研究』 2005年 第3期, pp.18-25.

³⁴ 이 상의 존재와 사진 정보를 알려주신 김리나, Roderick Whitfield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자세한 사진은 다음 책 참고. 俄羅斯國立艾爾米塔什博物館, 上海古籍出版社 編, 『俄藏敦煌藝術品』 第1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제321굴 서벽 龕室 양측에 배치되어 있었다.³⁵ 이 상들의 역할은 수문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불교 건축물의 입구에 등장하는 仁王像에서처럼 한쪽은 입을 벌리고 다른 한쪽은 입을 다문 모습을 하고 있다. 다소 왜곡된 사자의 모습을 한 동물상이 서벽의 감실 양측에 배치된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상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 동물들은 사자보다는 여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몸 전체가 흰색을 띤다. 또한 목 부분에 여러 개의 돌기가 나 있다.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들 동물상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는 7세기 후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垂拱4年(688) 낙양 동쪽에 위치한 汜水에서 瑞銘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이리도 표범도 아닌 것이 바로 武氏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³⁶ 다소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이지만, 제321굴의 동물상은 여기서 보이는 '이리도 표범도 아닌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³⁷

이들이 돈황 지역에 등장하게 된 맥락은 『사주도경』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691년 당시 沙州刺史이었던 李無虧가 祥瑞인 '흰색 이리(白狼)'를 朝廷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³⁸ 상서는 하늘이 현재의 군주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서로운 징조로, 690년 周 건국 전후로 여러 가지 상서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686년에는 神豐에서 산이 솟아올랐고, 689년에는 洛水에서 무축천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암시하는 글씨가 쓰인 돌인 寶圖가 발견되었다.³⁹ 돈황에서도 많은 상서가 보고되었다.⁴⁰ 이는 주로 무축천의 측근이나

1997). 圖22, 23. 이 도록에서는 제321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도판 설명은 따로 없다. 「序言」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鎮墓獸나 麒麟과는 차이를 보이며, 여러 동물을 부분적으로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府憲展, 앞의 논문, pp.17-18.

³⁵ 『俄藏敦煌藝術品』第4卷, pp.235-236. 현재 제321굴에는 서벽 감실 앞 양측에 한 쌍의 동물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敦煌石窟藝術』과 같은 도록에서는 이를 원래부터 있었던 唐代 조각이라고 한다. 『敦煌石窟藝術, 莫高窟第三二一窟』, p.222. 그렇지만 1914년 S. F. 올덴부르크가 이끄는 러시아 조사단이 돈황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에는 에르미타주 소장 상이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식적으로 볼 때도, 현재 제321굴에 있는 동물상은 조각이 단순하여 조각 수법으로 연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에르미타주 소장 동물상은 비례가 보기 좋으며 근육질의 몸과 변화 있는 얼굴 표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 사실적인 조각의 정점에 이르렀던 7세기 말의 작품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

³⁶ “非狼非豹爲武也”이라는 구절은 『대운경소』에 보이며, 사수에서 발견된 글씨인 廣武銘에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Forte, *Political Propaganda*, p.196.

³⁷ 張清濤, 「武則天時代的敦煌陰氏及相關洞窟」, 2004年 敦煌學術討論會 발표요지, p.94.

³⁸ 『法國國家圖書館藏敦煌西域文獻』, p.61. 자사를 지냈던 이무후의 무덤과 墓誌는 2002년에 발견되었다. 王團戰, 「大周沙州刺史李無虧墓及征集到的三方唐代墓誌」, 『文物與考古』2004年 第1期, pp.20-25.

³⁹ 寶圖에 대한 기록은 다음 참고. 『舊唐書』, p.119; Guisso, “The reign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

그의 환심을 사려는 이들이 조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691년에 돈황에 나타난 '흰색 이리'를 조정에 보고한 이는 이무후이지만, 애초에 이를 보았다고 보고한 이는 陰守忠이다. 음씨 가문의 일원인 음수충은 바로 제96굴의 彌勒大佛을 발원한 陰祖의 아들이다.⁴¹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음수충이 상서를 보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가 미륵대불 조성을 주도하면서 무주의 지지자임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면, 음수충은 상서를 보고함으로써 무주 정권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흰색 이리'라는 상서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宋書』 卷27 符瑞 부분과 『瑞應圖記』를 보면, 흰색 이리는 麒麟, 鳳凰, 甘露와 같은 서상과 비교하여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다.⁴² 그런데 이에 대해서 周의 宣王이 이를 얻었을 때 犬戎을 정복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⁴³ 이러한 의미는 변방 지역에 위치하면서 여러 민족의 침입을 막는 것이 중대한 현안이었던 돈황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음수충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武官이었다.⁴⁴ 이렇게 볼 때, 음수충이 여러 서상 중에서 '흰색 이리'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사수에서 발견된 글에 착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돈황의 상황에 부합하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제217굴

제217굴의 개착 연대는 武則天 정권이 몰락한 직후인 705년에서 709-710년 사이로 추정된다.⁴⁵ 주실의 서쪽 벽 감 아래와 남쪽 벽 아래 제기가 일부분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陰嗣

tsung,"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Part I(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232. 신풍에 등장한 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김혜원, 「돈황 막고굴 제321굴〈보우경변〉에 보이는 산악 표현의 정치적 의미와 작용」, p.89.

⁴⁰ 史葦湘, 앞의 논문, pp.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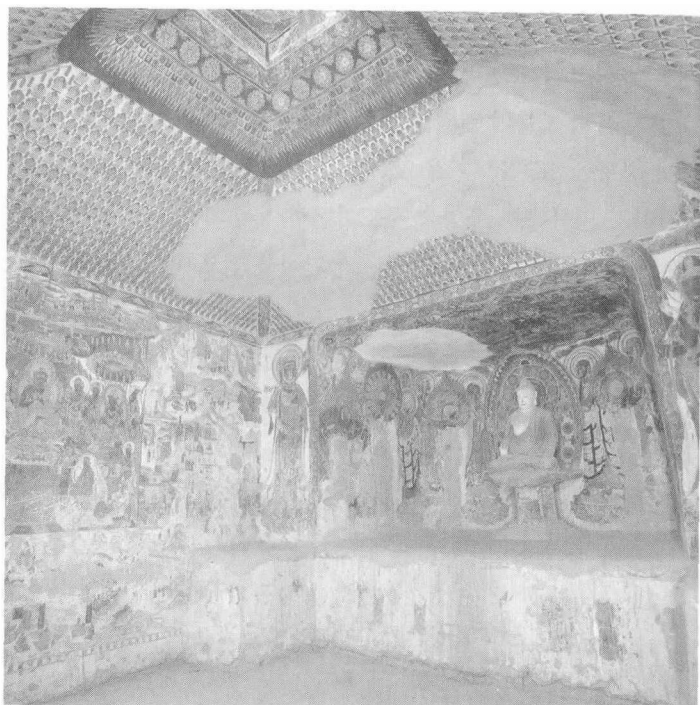
⁴¹ 池田溫, 「唐朝氏族志の一考察」, p.10.

⁴² 『宋書』 卷27 符瑞, pp.759-878; 孫柔之, 『瑞應圖記』, p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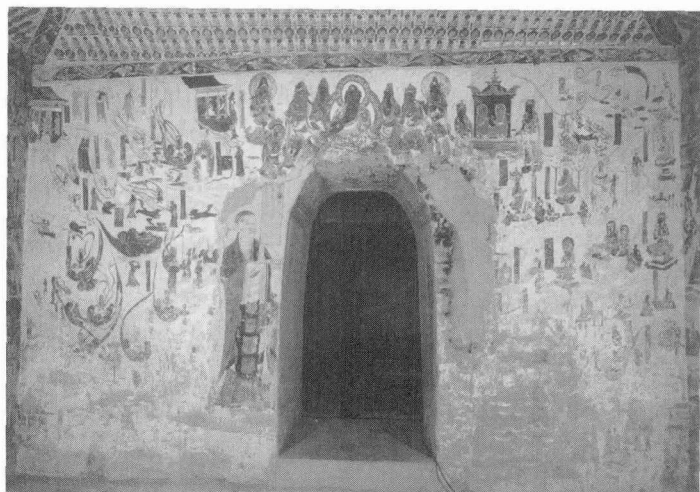
⁴³ “白狼宣王得之而犬戎服.” 『宋書』 卷27 符瑞, p.809; 孫柔之 위의 책, p.21.

⁴⁴ 『돈황명족지』에 의하면, 음수충은 무관에 해당하는 여러 직책을 지냈고, 正四上品에 해당하는 忠武將軍에까지 올랐다. 池田溫, 「唐朝氏族志の一考察」, pp.10, 24.

⁴⁵ 제217굴의 절대연대는 없지만 『돈황명족지』에는 음사육이 관직을 가지고 있으나, 제217굴 공양자로 등장하는 음사육은 아직 관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제217굴은 『돈황명족지』가 편찬되기 이전, 즉 709-710년 이전에 개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진 왕은 보다 구체적으로 708년경이라는 연대를 제시한 바 있다.



도 10 돈황 막고굴 제217굴
내부 전경
(서벽, 남벽 일부)



도 11 돈황 막고굴 제217굴
동벽 <보문품변>

Eugene Wang, "Whose Paradise Is It, Anyway? The Lotus Sutra Tableau in Dunhuang's Cave 217 Revisited," *Orientalism*, vol. 27, no. 10(1996), p.44; Eugene Wang, *Shaping of the Lotus Sutra: Buddhist Visual Culture in Medieval China*(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6), p.139; 賀世哲, 앞의 논문, pp.203-204.

瓊과 陰嗣玉의 이름이 보인다.⁴⁶ 『돈황명족지』에 의하면, 이들의 할아버지는 제96굴을 발원한 음조와 함께 당시 가장 연장자로 기록된 陰稠로, 그 역시 명예직에 해당하는 板授鄧州刺史를 지냈다. 음사경은 음조의 첫째아들인 陰仁幹의 아들이고, 음사옥은 그의 사촌이다. 이들은 모두 무관으로 각각 昭武校尉, 邢州平鄉縣尉를 지냈다.⁴⁷

제217굴은 제321굴처럼 서쪽 벽에 감이 있고, 남쪽과 북쪽 벽에는 벽면 전체를 덮는 變相이 그려져 있다⁴⁸. 이들 벽화는 모두 이전 시기의 벽화에 비해 통일성 있는 구도와 능숙한 세부 묘사의 처리가 돋보인다. 우선 동쪽 벽을 보면, 전 벽면에 걸쳐 〈普門品變〉이 그려져 있어 여러 벽화를 조각보처럼 이어 벽면을 채운 제321굴에 비해 훨씬 통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⁴⁹. 석굴의 남벽과 북벽에는 각각 〈法華經變〉과 〈觀無量壽經變〉이 그려져 있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 미국 학자인 유진 왕은 제217굴의 남벽과 북벽 벽화의 배치가 『歷代名畫記』 제3권에 기록된 낙양 慶愛寺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⁸ 『역대명화기』에는 경애사 大殿의 동쪽 면에는 '법화경'의 그림이, 서쪽 면에는 '서방정토와 16관'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⁴⁹

유진 왕은 제217굴의 벽화와 경애사 벽화의 배치가 놀랄 정도로 같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양자가 같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더구나 해당 구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동벽과 서벽에 각각 〈법화경변〉과 〈서방정토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벽에는 維摩詰과 노사나, 法華, 太子相이 있고, 서벽에는 西方佛會, 16觀과 閻羅王의 變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 왕은 동벽의 유마힐, 노사나, 태자상이 모두 〈법화경변〉의 일부인 것을 장언원이 착오한 것으로 보며, 서벽의 염라왕의 변 역시 〈서방정토변〉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⁰ 장언원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이처럼 다양한 도상이 한 벽면에 어떻게 함께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유진 왕의 설명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설명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목할 점은 경애사가 657년 황실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이곳에서는 7세기 후반 내내 황실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무척천의 황제 즉위와 밀접

⁴⁶ 敦煌研究所 編,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 pp.99-100.

⁴⁷ 池田溫, 「唐朝氏族志の一考察」, pp.7-8,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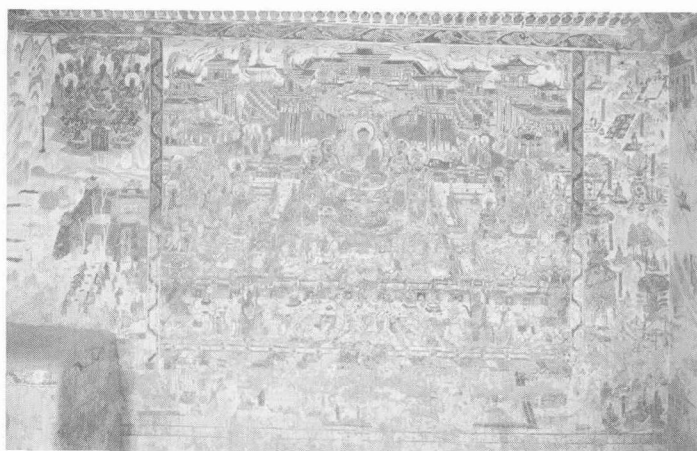
⁴⁸ Wang, 앞의 논문, pp.133-139.

⁴⁹ “大殿內東西面壁畫 維摩詰盧舍那 法華太子像 西壁西方佛會 十六觀及閻羅王變.” 張彥遠, 『歷代名畫記』 卷3 pp.135-140.

⁵⁰ Wang, 앞의 책, pp.133-139, 171-176.



도 12 돈황 막고굴 제217굴
남벽 〈법화경변〉



도 13 돈황 막고굴 제217굴
북벽 〈관무량수경변〉

한 관련을 맺는 『대운경소』와 『보우경』이 모두 이곳에서 완성되었다.⁵¹ 또한 665년 王玄策이 인도에서 가져온 본을 바탕으로 경애사의 造像 제작을 지휘했고, 695년 義淨이 인도에서 가져온 보물을 이곳에 보관하기도 했다.⁵² 이렇게 볼 때, 경애사는 당시 중원에서 정치적·종교적 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사찰 중 하나로, 여기에 그려진 벽화는 최신의 도상과 양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애사 벽화와 제217굴 벽화의 배치의 유사함은 제217굴과 중원 사찰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⁵¹ Forte, *Political Propaganda*, pp.3-54.

⁵² Wang, 앞의 책, pp.132-133.

있다. 나아가 이는 제217굴에 보이는 짜임새 있고 능숙하게 완성된 세련된 벽화가 중원 사찰의 최신 경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남쪽 벽의 〈법화경변〉은 제321굴 〈보우경변〉과 비교하여 인물이나 산악의 묘사가 좀더 복잡해지고 세부가 풍부해진 모습을 보인다. 여기 표현된 가파른 절벽과 굽이친 언덕의 표현은 이전에 비해 훨씬 능숙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 시기에 표현된 산악 표현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예에 해당한다.⁵³ 이와 더불어 이 벽화에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로는 중앙의 설법 장면은 가는 선을 둘러 구획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이나 동시기 다른 〈법화경변〉에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모리타카 마츠모토와 같은 학자는 〈관무량수경〉의 구획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⁵⁴ 물론 제217굴 〈관무량수경〉의 구획 방식과 〈법화경변〉의 구획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전자에서는 문양이 있는 띠를 사용하여 화면을 나누고 있고, 제217굴의 〈법화경변〉에서는 가는 선으로 중앙 부분에 보다 작은 크기의 사각형 구획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부처가 주재하는 공간과 일반적인 속세의 공간을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지니며, 이런 의미에서 가능성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북쪽 벽의 〈관무량수경변〉은 서방정도의 장면과 16觀, 未生怨을 한 벽면에 그린 가장 이른 예 중 하나로, 남쪽 벽의 그림과 더불어 당시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양 띠로 구획된 서방정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16관을, 아래와 왼쪽에는 未生怨을 그려 넣고 있다. 이 그림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왼쪽 하단에 그려진 장면이다. 후대의 〈관경변〉에서는 16관 부분처럼 단을 나누어 미생원의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는 넓은 벽면에 두 장면만을 크게 묘사하고 있다. 위에는 부처와 청중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며, 아래 부분에는 큰 성곽을 배경으로 열을 지어 서 있는 군인들과 이들을 지휘하는 말을 탄 인물이 보인다¹⁴. 경전에서 근거를 찾자면, 전자는 위제희 부인이 설법을 청하자 부처가 阿難과 目健連을 데리고 그를 찾아가는 모습에 해당되고, 후자는 아사세 왕자가 자신의 부모인 빔비사라 왕과 위제희 부인을 가둔 후 성 앞에서 있는 장면에 해당된다.

상당히 큰 비중으로 표현된 군인과 통솔자의 모습에 대해 유진 왕과 같은 학자는 당시

⁵³ 秋山光和, 앞의 논문, pp.196-198, 삽도 10.

⁵⁴ Maritaka Matsumoto, "The Iconography of Śāka's Sermon on the Vulture Peak and Its Art Historical Meaning," *Artibus Asiae* 53, 3/4(1993), pp. 392-394. 한편, 유진 왕은 이를 『법화경』에서 설하는 法門을 형상화한 것으로 설명했으나,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면 다른 〈법화경변〉에서는 왜 표현되지 않은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Wang, 앞의 논문, pp.44-49.



도 14 도 13의 세부

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지어, 705년 長安 皇城의 玄武門에서 일어난 반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⁵⁵ 한편 중국의 馬德과 같은 학자는 음씨 가문의 사람들이 대부분 무관직을 지낸 것에 주목하며, 군인들과 관련된 장면이 강조된 것은 발원자의 출신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⁵⁶ 이 중 후자의 의견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중원의 그림을 돈황에서 받아들일 때 발원자의 성향에 따라 일부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217굴 벽화의 모본이 중원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석굴이 무측천이 皇位에서 물러난 이후에 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측천 시기의 벽화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석굴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96굴이나 제321굴과 같이 무주 정권을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석굴의 벽화나 구성에서 발원자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700년 이후에는 690년 주 건국 전

후로 몇 년 동안 왕성했던 정치적 선전이 약화되었던 시기로, 이를 이용한 출세의 기회도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제217굴을 개작한 음씨들이 속한 가계의 성향도 석굴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제96굴이나 제321굴과 관련된 陰祖, 음수충 부자처럼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지는 않으며, 이보다는 종교적인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陰稠의 넷째아들인 음인협은 679년, 680년, 700년에 『金剛經』을 사경했으며, 그의 조카인 음사원은 696년과 708년에 『觀音經』과 『금강경』을 사경했다.⁵⁷

⁵⁵ Wang, 앞의 책, pp.175-176.

⁵⁶ 馬德, 「敦煌陰氏與莫高窟陰家窟」, p.93.

⁵⁷ 池田溫, 「八世期初における敦煌の氏族」, p.41.

그런데 陰稠의 가계에서도 출세나 임관에 대한 바람은 찾아볼 수 있다. 최소한 20여 년에 걸쳐 『금강경』을 사경한 음인협이 700년에 쓴 『금강경』의 발문(S. 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六品을 얻었던 때 발원하여 매월 『금강경』 1권을 쓰는 것을 일로 삼고, 五品을 얻으면서는 매월 2권을 쓰는 것을 일로 삼았다. 그런데 계속 종군하여 紙墨을 준비하지 않아 本願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 완성하게 되었으니, 萬物을 위해 이 경을 바친다.”⁵⁸ 여기에는 음인협 역시 출세나 임관을 바랐음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음조나 음수충 부자처럼 彌勒大佛이나 祥瑞를 통해 무주 정권을 직접적으로 선전하기보다는, 신앙생활과 수행을 통해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III. 陰家窟의 특징과 陰氏의 정치적 성향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당기의 음가굴은 규모, 도상, 표현방식, 모티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를 보인다. 제96굴은 大像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소개된 석굴이며, 제321굴은 〈보우경변〉, 하얀 이리와 같은 새로운 주제와 더불어 벽화에서 탁월한 공간감의 표현이 돋보인다. 제217굴은 벽화에서 통일성 있는 구도와 능숙한 세부 묘사, 그리고 〈관무량수경〉과 〈법화경변〉에 보이는 구획 방식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당시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며 동시에 다른 석굴에 영향력이 있었던 주요 석굴로 볼 수 있다.

초당기 음가굴에서 보는 ‘주요 석굴’로서의 특징은 명족 발원의 석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명족 발원 석굴로는 제220굴과 제332굴을 들 수 있다. 제220굴은 명족인 翟氏가 정관22년(642)에 발원한 석굴로, 이곳의 남, 북벽에 그려진 〈阿彌陀經變〉과 〈藥師經變〉은 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대규모의 경변으로 등장하는 가장 이른 예 중 하나이다. 또한 석굴의 동쪽 벽에 그려진 〈維摩經變〉은 7세기의 대표적인 궁중화가 閻立本의 〈帝王圖卷〉에 보이는 황제와 매우 유사한 인물 표현이 청중의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일찍이 중원과의 연관성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⁵⁹ 聖歷元年(698)에 개착된 제332굴은 명족 李氏가 발

⁵⁸ “得六品發願月別許寫一卷 得五品月別寫經兩卷 久爲行未辨紙墨不從本願 今辨寫得普爲一切轉讀。” 池田溫, 「八世初における敦煌の氏族」, p.45; 商務印書館 編, 『敦煌遺書總目索引』(北京: 商務印書館, 1962), p.111; 藤枝晃, 「敦煌出土の長安宮廷寫經」, 『塚本博士頌壽記念佛敎史學論集』(1961), pp.647-667.

⁵⁹ 제220굴의 벽화는 많은 논문에서 다루었지만, 이 석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Ning Qiang, 앞의 책. 또한 〈유마경변〉에 등장하는 황제를 포함한 청중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 참고. 김혜원,

원한 석굴로, 여기에는 〈阿彌陀如來五十菩薩〉과 같은 새로운 도상이 등장하며, 〈涅槃經變〉은 이전과는 달리 넓은 화면을 활용하여 표현되어 있다.⁶⁰

그런데 이 시기 음가굴을 다른 명족 발원의 석굴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점은 690년 武周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주 정권의 정당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명족에 비해 음씨가 유난히 무주 정권의 등장과 변화에 민감했으며 이를 적극 지지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들이 당시의 새로운 정권에 동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돈황명족지』를 보면 음씨는 “隋, 唐 이래 유력한 가문(望族)이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이들은 3-4세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張氏, 索氏, 汜氏 등과는 달리 늦게 명족의 대열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⁶¹ 음씨가 隋代부터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관직에 대거 진출한 것은 7세기 말과 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⁶²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691년 祥瑞를 보고한 기록에 음수충은 관직명 없이 ‘百姓’으로 언급되어 있다.⁶³ 695년 음조가 제96굴을 발원했을 때에도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709-710년경에 편찬된 『돈황명족지』를 보면, 음수충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의 음씨 가문 사람들이 관직을 지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7세기 말경, 즉 則天武后가 周를 세우고 황제에 즉위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돈황명족지』에 기록된 씨족 중에서 장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음씨의 세력은 691-710년 사이에 급격히 커져 돈황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690년 새로이 등장한 武周 정권을 지지한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동시기 다른 명족에 비해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던 음씨 가문의 사람들은 새로이 등장한 정권을 자신들의 임관과 출세의 기회로 적극 이용한 것이다.

『돈황 막고굴 당대 〈유마경변〉에 보이는 세속인 청중의 도상과 의미』,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사회평론, 2006), pp.350-365.

⁶⁰ 〈아미타여래오십보살〉 도상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松本榮一, 앞의 책, pp.482-483; 최선아, 「동아시아 7-8세기 전법륜인 아미타불좌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44(2004. 12), pp.40, 56.

⁶¹ 돈황의 초기 명족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고. 白須淨眞, 「在地豪族・名族社會」, 『敦煌の社會』(東京: 大東出版社, 1981), pp.3-49. 음씨의 선조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없지만, 그들의 활동이 隋 이전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西魏 시기 제285굴 북벽에 그려진 음씨 일원 발원의 벽화와 제기가 있다. 池田溫, 「八世期初における敦煌の氏族」, pp.32-37;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第1卷, pp.246.

⁶² 池田溫, 「八世期初における敦煌の氏族」, pp.23-24.

⁶³ 『法國國家圖書館藏敦煌西域文獻』, p.61.

다만 7세기 말과 8세기 초의 음씨 가문 사람들의 성향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陰祖와 陰稠의 두 집안 중에서 이러한 경향은 제96굴과 제321굴과 관련 있는 陰祖 가계에서 유난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돈황명족지』를 보면, 陰稠 가계에 비해 陰祖 가계의 기록은 매우 짧아 8세기 전반 이후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⁶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陰祖 가계는 무측천의 등장에 편승한 경향이 강했고, 무측천의 몰락 이후 그들의 기록에 남은 만한 뚜렷한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IV. 맺음말

돈황의 풍부한 시각 자료와 증원의 방대한 문헌 자료는 종종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밀접한 연관 속에서 논의되었다. 더욱이 이는 무측천기 막고굴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이 글에서는 초당 시기에 돈황의 음씨 가문이 발원한 제96굴, 제321굴, 제217굴을 살펴봄으로써 돈황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무측천기 석굴의 성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초당기에 개작된 음가굴은 모두 도상, 형식, 표현방식에서 기존의 돈황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명족 발원의 석굴들이 증원의 새로운 그림을 돈황 지역에 소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석굴들은 동시기 다른 명족이 발원한 석굴과 비교할 때, 690년 등장한 무주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른 명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명족 대열에 들어선 음씨 가문은 새로이 등장한 무주 정권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 문헌 자료는 이 시기 음씨 가문의 사람들이 대거 관직에 진출했음을 잘 보여준다.

석굴 자료를 볼 때, 제96굴과 제321굴은 음씨 가문 중 陰祖 가계가 유난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주 정권이 정치적 선전물로 사용한 미륵대불을 비롯하여, 상서와 무측천의 이름을 상징하는 해, 달, 하늘의 모티프가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709-710년 이전에 조성된 제217굴은 앞선 두 석굴처럼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제217굴을 조성한 陰稠 가계

⁶⁴ 池田溫, 「唐朝氏族志の一考察」, pp.13-14.

가 96, 321굴과 관련된 陰祖 가계와는 달리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약했고, 또한 무주 정권의 정당화 사업이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않아 무주 정권을 지지하며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돈황 지역 발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시 개착된 막고굴에 중원과는 다른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발원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중원의 사찰이나 관련 벽화 자료가 남아 있기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제321굴의 하얀 이리상과 제217굴의 <관경변상>에서 강조된 군사들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변방이라는 돈황의 지역적 특수성과 무관이라는 발원자의 신분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돈황 막고굴의 지역적인 맥락을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key words) __ 初唐期(Early Tang), 敦煌(Dunhuang), 陰家窟(Yin Family Caves), 武則天(Wu Zetian), 發願者(Donors)

▣ 투고일 2006년 10월 17일 | 심사일 2006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5일 ▣

본고는 中原과 敦煌 지역이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初唐期 敦煌 莫高窟의 지역적인 맥락을 고찰하기 위해 陰氏 가문이 발원한 석굴인 陰家窟의 미술과 발원지를 살펴본 글이다. 초당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음가굴은 제96, 321, 217굴이다. 이들은 모두 돈황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상과 양식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제96굴의 경우, 거의 90세에 가까웠던 陰祖라는 인물이 주요한 發願者로 참여했다. 석굴에 보이는 새로운 요소는 彌勒大佛로, 이는 武則天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면서 자신과 미륵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배경에서 중시된 도상이다. 제321굴에는 五代 명문에 음씨가 언급되고 있다. 이 석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요소는 남쪽 벽에 표현된 〈寶雨經變〉에서 찾아볼 수 있다. 『寶雨經』은 무측천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던 경전 중 하나이다. 이 벽화와 무측천의 연관성은 벽화 윗부분에 표현된 구름 속에서 등장하는 동그란 물체를 들고 있는 두 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무측천 시기에 새로 제정된 한자로 쓴 그의 이름 “瞿”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 석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한 쌍의 하얀 동물상이다. 이는 691년 음조의 아들 陰守忠이 보고했던 祥瑞인 ‘하얀 이리(白狼)’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17굴의 발원자 제기에는 陰嗣瓊과 陰嗣玉의 이름이 남아 있다. 이들은 제96굴을 발원한 陰祖와 더불어 8세기 초 음씨 가문의 가장 연장자였던 陰稠의 손자들이다. 이 석굴에서는 동, 남, 북벽에 그려진 벽화에서 모두 새로운 구도와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남벽 〈法華經變〉의 가운데 그려진 佛說法 장면을 둘러싼 구획과, 북벽 〈觀無量壽經變〉의 왼쪽 부분에 큰 비중으로 그려진 군사들의 모습이다.

이처럼 이 시기에 음씨 가문에서 발원한 석굴이 많고, 여기에는 새로운 도상과 양식을 이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음씨 가문의 세력이 이 시기에 급격히 커진 것과 관계가 있다. 『돈황명족지』에 의하면, 음씨는 다른 명족에 비해 뒤늦게 명족의 대열에 올랐다. 또한 무측천이 집권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가 되면 관직에 오른 이가 21명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돈황에서 張氏 다음인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제96굴과 제321굴처럼 무측천이 황제의 지위에 오르면서 사용한 정치적 정당화와 관련된 모티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무측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陰稠의 가계보다 陰祖의 가계에서 뚜렷하며, 후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8세기 전반 이후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들이 당시 정권에 편승했음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초당기 음씨 가문이 발원한 음가굴에는 돈황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대부분 중원에서 새로 유입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제321굴의 하얀 이리 조각과 제217굴의 <관무량수경변>에 표현된 군사들의 모습은 돈황의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상서 가운데 하얀 이리는 변방의 민족을 정벌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북 변방에 위치하여 변방의 침입이 중요한 과제였던 돈황 지역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더불어 관직에 오른 음씨의 대부분은 이러한 일을 담당했던 무관이었다. 무관이라는 발원자의 배경은 또한 제217굴 <관무량수경변>에 군사들의 훈련 장면이 큰 비중으로 표현된 것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A Study of Yin Family Caves in Dunhuang during the Early Tang

Kim Haewon*

The article attempts to emphasize the regional context of the Dunhuang Caves of the Early Tang (618-712) by examining the caves constructed by Yin Family during the period. The caves in concern are Mogao Caves 96, 321, and 217. These cave shall stand out for their adoption of unprecedented iconographies and styles in the Dunhuang region.

As for Cave 96, almost ninety-year old Yin Zu participated as its major donor. The cave's new feature is its main icon, the colossal statue of Maitreya Buddha. The iconography is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Maitreya during the Wu Zetian's period (690-705) when the newly enthroned female emperor and Maitreya was equated.

In Cave 321, there remain in scriptions with the surnames of Yin from the Five Dynasties period. This cave again is filled with new iconographies and styles, and it is most notable in the wall painting on the south wall. The painting has been identified as the Precious Rain *bianxiang*. The Sutra of Precious Rain (*Baoyujing*), which this painting takes its theme from, is the sutra that Wu Zetian used for the justification of her political legitimac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inting and Wu Zetian i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two hands with round objects appearing from a band of clouds. It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Wu Zetian's name "Zhao" in its new

*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character formulated during the Wu Zetian's reign. Another notable feature is a pair of two white animal statues that were installed in front of the niche on the west wall. They are regarded to be "White Wolf," one of the auspicious signs that was reported from Dunhuang by the son of Yin Zu (the donor of Cave 96), Yin Shouzhong.

Among the donors' inscriptions in Cave 217, the names of the Yin family members are preserved including Yin Sijing and Yin Siyu. They are grandson's of another Yin Zu, who was one of the two elders of the Yin family during the early eighth century. The paintings on the south, north, and east walls show new compositions and motifs. Especially notable are the demarcation around the Buddha's assemble in the center of the Lotus Sutra bianxiang on the south wall, and the group of soldiers represented in the Contemplation Sutra bianxiang on the north wall.

The Yin family in Dunhuang was a late comer to the group of prominent familie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e Record of Eminent Families in Dunhuang, the Yin family became an eminent family after Sui-Tang period. Other relevant records show that twenty-one members of the Yin family attained official titles between the late seventh and early eighth century, and they became the second-rank among many eminent families in Dunhuang. Considering many Wu Zetian-related motifs in their caves, especially in Caves 96 and 321, it appears that the Yins were solidly established as one the most powerful clans in Dunhuang by demonstrating themselves as great supporters of Wu Zetian. This was more obvious in the case of the Yin Zu and Yin Shouzhong line, whose records after the early eighth century does not remain.

While these caves adopted the new iconographies and styles from the Central Plain, some regional elements are found as well. It seems plausible that the "White Wolf" from Cave 321, which symbolizes a successful defeat of the "barbarians," and the group of soldiers represented in the Contemplation Sutra bianxiang in Cave 217, are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the Dunhuang region and the professional background of the donor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frontier, attacks from the neighboring regions were biggest concerns for the Dunhuang people. Moreover, many of the Yin family members served as military officials.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caves not only have the newly introduced elements from the Central Plain but also have regional themes and motifs.